# 천태만상, 자판기 세상 속으로
# 그 두 번째 보따리

**커피자판기에 훈풍을 실어**

먼저 봄의 미풍같이 훈훈한 얘기부터 시작하기로 하자. 자판기 커피 한잔이 때로는 따스한 마음을 전하며 사람과 사람의 진솔한 소통을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하기도 한다. 불과 몇백원 짜리 커피 한잔일지라도 거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과 사람사이의 정이 소록하게 담겨 있다.

"학생 모두에게 자판기 커피를 주시는 교수님을 아시나요."

한 예비역 삼성장군 출신 교수의 뜨거운 제자사랑이 대학가에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고려대학교에서 '전쟁과 국가' '지도자론'을 강의하고 있는 서경석 교수(64). 서교수는 17사단장과 3군 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하고 99년 중장으로 전역한 뒤 지난 2000년부터 모교 고려대(사학과 61학번)에서 후배양성에 힘쓰고 있다.

서교수의 수업이 있는 날이면 강의실은 서교수가 자판기에서 이제 막 뽑아낸 30~40잔의 커피가 뿜어내는 향기로 가득하다. 학생들에게 베푸는 일종의 서비스다.

서교수의 커피 서비스는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업을 들으러 오는 공과대 학생들을 위한 배려로 시작됐다. 또 세 시간 연달아 이어지는 강의시간이 점심시간 이후 배정돼 있어 졸음이 몰려오기 딱 좋은 시간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학생들도 서교수의 깊은 뜻을 알고부터는 졸고 있는 옆 친구를 위해 커피를 대신 가져다주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서교수는 월남파병 중대장 시절 전투에서의 뛰어난 전과로 명성을 떨쳐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시절 '대한민국 최고의 싸움꾼'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맹장이었다. 풍부한 야전경험을 바탕으로 '전투감각'이라는 책을 저술했고 이 책은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주 수업교재로 채택되기도 했다.

교단에 선 뒤에도 여전히 호칭은 '장군님'이다. '스리스타'의 위상을 잘 알고 있는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정착돼 이제는 여학생과 교직원들까지 쓰는 공통 호칭이 됐다.

서교수의 강의도 인기를 모아 안암캠퍼스와 서창캠퍼스 두 곳에 개설된 강의는 각각 450명씩 총 900여명의 학생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만원을 이룬다 한다. 단일강좌로는 고려대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라는 관계자의 말이 서교수의 인기를 실감케 한다.

서교수는 "군인으로서 살아온 평생 동안 나라로부터 받은 분에 넘치는 사랑과 혜택을 이렇게나마 조금씩 보답하며 살고 싶다"며 호탕하게 웃는다.

이제는 자판기 동전반환구에 동전을 넣어 놓는 따듯한 손길에 관련된 미담으로 가 보자.

지루한 야근 시간. 커피 한잔 뽑으러 자판기 앞에 갔는데 잔액이 남아있는 걸 발견한다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이다. '이게 웬 떡이야' '어느 바보가 거스름돈을 안 가져갔지?' 하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손길이 있었다.

광고회사 오리콤의 그래픽 디자이너 박재윤씨(28). '퇴근전, 야근하는 동료들을 위해 오늘도 자판기 가득 동전을 넣어둡니다. 때론 말없이 보여주는 사랑이 더 큰 힘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 이라는 카피의 얼마전 소주 광고에 등장해 활짝 웃고 있는 그는 그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이다. 밥먹듯 야근을 하다가 오랜만에 일찍 퇴근하던 날, 먼저 퇴근하는 게 미안해서 여느 때처럼 자판기에 동전을 남겨두는 장면이 우연히 목격된 것이 '모델'로 전격 발탁된 계기였다.

"평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누구를 도와주거나 봉사한 적도 그다지 많지 않은데요…"

얼굴을 살짝 붉히는 박씨는 아직도 전국으로 전파된 광고에 등장한 것이 쑥스럽기만 하단다.

이로 인해 달라진 게 있다 한다. "야, 돈 놓고 갔어" 라고 '원치 않는' 지적을 해주는 상사에게 "아, 예…"하며 머쓱한 표정으로 돈을 도로 꺼내갈 일이 없어졌다는 것. 또 사내에서 자판기의 잔돈을 가져가지 않는 유행을 불러일으켰다는 것. 그중에도 제일 기분 좋은 건 지방에서 구멍가게 하시는 부모님에게 냉장고에 아들 얼굴 붙여놓고 소주 파는 기쁨을 드린 일이다.

한편, 국민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이 자판기 커피의 마니아라는 사실도 훈풍 가득한 소식이 아닐지.

뭐든 잘먹고 식성도 서민적인 노대통령은 유난히 자판기 커피를 좋아 한다고 한다. 대통령 후보시절 여직원이 커피를 타주려 하면 "나는 자판기 커피가 제일 맛있더라"며 직접 뽑아 마시는 경우가 많았다 한다.

자판기 커피 한잔하며 여유를 즐기는 서민적인 풍모를 간직한 그였기에 권위적이지 않고 친근감 있게 국민들에게 어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한다. 대통령이 된 지금에도 자판기 커피 한잔하며 국정 구상하는 서민적인 대통령을 기대해 보는 건 욕심일까? 근데 청화대에 자판기가 있기는 한건지?

### 자판기 영업사원에서 최고의 농구감독으로

현역 농구감독 중에 자판기 영업사원 출신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지? 농구감독이 되기 위해선 대개 선수출신에 코치, 감독 순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하는 현실에서 자판기 영업사원을 출신의 농구 감독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이색적이고 놀라운 사실이다.

'멋진 신사 이상윤.'

이상윤 여수 코리아텐더 감독대행의 팬클럽(cafe.daum.net/LEESY) 명칭이다. 이감독대행은 10개구단 감독 중 가장 짧은 감독 경력의 소유자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많은 수의 팬클럽 회원을 갖고 있는 최고 인기 감독이다.

이는 그만큼 이감독대행이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는 반증이다. 코치 한 명 없는 감독대행 신분으로 팀을 프로원년 97시즌 이래 무려 6년 만에 2002~2003 애니콜 프로농구 4강에 진출시킨 이 감독대행. 사실 코리아텐더는 시즌 개막 이틀을 앞두고 갑작스레 생긴 전형수(모비스)의 공백으로 하위

권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었다. 그러나 이감독대행은 이를 보기 좋게 뒤엎으며 한때는 단독선두로 치고 나가기도 했고 또 올시즌 KBL 팀 최다연승인 7연승 바로 밑까지 내달리기도 했다.

이런 코리아텐더 돌풍은 이감독대행의 성실함이 만들어낸 작품. 그런 이감독대행이 자판기 영업사원 출신이란다. 갑작스런 부상으로 일찍 선수생활을 그만두고 음료 자판기와 아이스크림 쇼케이스 영업사원을 했던 이감독대행은 요즘도 회식자리에서 종종 "내가 아직도 음료 자판기를 딱 보면 이건 어느 회사 무슨 모델이고 안쪽에 동전함은 어디 있고 그런 내부구조를 금방 알아요"라며 힘들었던 시절을 회고하곤 한다. 그만큼 맡은 일은 무엇이든 열심히 했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을 수 있었던 것. 이감독대행은 지금도 매일 비디오 분석 및 패턴 공부 등을 하느라 새벽 3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기본이다. 이런 이감독대행에 대한 좋은 평가로 감독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일부 구단에서는 이감독대행을 차기 감독후보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상! '자파라치' 득세**

지난 2년여간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으로 한몫을 챙겼던 '카파라치'들이 올들어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가 폐지되면서 또 다른 신고 보상금을 노리는 신종 파파라치로 잇따라 전업'하고 있다.

'자파라치'(불법자판기 적발), '쓰파라치'(불법쓰레기 투기 감시), '팜파라치'(불법약 판매행위 적발), '슈파라치'(불량식품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슈퍼에서 찾아내는 파파라치), '담파라치' (담배꽁초투기 감시) 등이 바로 그 대상영역.

당국에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쫓아다니는 신종 파파라치들은 각종 인터넷 카페를 통해 동업자 방을 만들고 있고, 심지어 신종 보상금 신고꾼 양성소까지 만들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터넷 다음 카페 '카파라치(cafe.daum.net/zkv-kfkom)'에는 '자파라치, 쓰파라치, 슈파라치로서 서로 믿고 전국투어할 사람을 찾는다', '캠코더, 카메라, 영상편집기가 있으니 자파라치 전국투어를 원하는 차량있는 사람 연락을 기다린다' 등의 동업자를 찾는 글이 잇따라 올라 있다.

또 다른 카페 카파라치 교육원(cafe.daum.net/zkvkfcl-good)'의 게시판에도 슈파라치로 목돈 잡을 사람', 전국투어할 사람' 등을 찾는 글이 줄을 이었다.

실제로 한건당 보상금의 액수도 적지 않아 '팜파라치'는 불법약 판매행위를 적발, 신고할 경우 건당 10만~20만원, '슈파라치'는 불량식품을 신고할 경우 건당 3만원, '쓰파라치'는 투기된 불법쓰레기 과태료의 8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카파라치 붐을 타고 카파라치 전문 양성소'를 표방했던 업체들도 교통신고보상금제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신고보상금제를 소개하며 신종 신고꾼 양성소로 업종을 전환하고 있다.

카파라치에서 최근 슈파라치로 전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슈파라치 양성소를 차린 박모(36)씨는 "카메라 등 고가 장비를 사 뒤늦게 카파라치에 입문했던 사람들이 대거 슈파라치로 업종을 바꾸고 있다"며 "이들에게 식품위생관련법을 숙지, 전국의 대형매장을 돌아다니며 터득한 노하우를 토대로 성공적인 슈파라치가 될 수 있는 정보와 비법을 전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슈파라치 양성소는 불량식품이나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많이 적발할 수 있는 대형유통매장 정보를 망라, 이 정보는 물론 불량식품 판별방법, 보상금이 많은 물품 등을 알려주는 2시간짜리 교육을 한 후 수강료로 97만원을 받고 있다.

### 자판기 사기 백태

자판기 사기는 극히 개인적인 범위에서부터 외부적으로 큰 파장을 끼치는 집단적인 경우까지 그 양상이 다양하기 그지없다. 사소한 범위의 사기는 그래도 동정의 여지가 있으나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정말 악질이어서 엄중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 22일 허위 도난신고를 한 뒤 보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사기)로 송모(48)씨 등 4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대전시 서구 관저동 자신의 농원에 커피자동판매기 2대를 설치했으나 장사가 되지 않자 지난 9일 공범들에게 자판기를 가져가도록 한 후 이를 도난당했다고 보험회사에 거짓으로 신고, 보험금 320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다.

경찰은 중고 자판기 매매업자 상대 탐문수사를 통해 자판기 매각자 명단을 확보, 일일이 확인한 끝에 송씨의 자작극임을 밝혀냈다.

국토방위를 위해 충실해야 할 국방부 현역상사가 자판기 사기행각이라.

한 현역상사가 군동료와 이웃주민 등을 상대로 수년간 13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이다 군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1월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9일 국군통신사령부 소속 행정보급관 정모 상사(41)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상사는 1998년부터 최근까지 군 동료 등 20여명에게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에 커피자판기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에서 2억여원까지 사례비 명목으로 받거나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1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콘돔 배포, 익명성 보장된 자판기가 최고

콘돔자판기 만큼 그 설치 확대 필요성 높은 자판기 품목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성병예방, 원하지 않은 임신방지를 위해 설치확대가 꼭 필

요한 콘돔자판기가 인식부족과 여러 제약요인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여기 콘돔자판기가 왜 설치확대가 되어야 하는 지를 여실히 입증하는 사례가 하나 있다.

2001년 5월, 경북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는 대학 내 콘돔자판기 설치에 관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윤경희씨(의과대 간호학과 2)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콘돔자판기 논쟁'은 찬반양론이 치열한 공방을 이뤘다. 이에 대해 경북대측은 복지관 2층 보건소 입구에 자판기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논쟁이 가라앉은 후 경북대 보건소측은 내부 논의를 통해 콘돔자판기를 설치하는 대신 '무료 배포'를 실시했다. 콘돔을 가져가는 학생은 단대 · 학과 · 이름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배포 명부 또한 다음 사용자가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로부터 1년이 넘은 시점까지 신분 노출을 마다하지 않고 콘돔을 가져간 학생은 4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경진씨(인문대 독어독문 4)는 "무수한 토론을 통해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무료 배포를 실시함으로써 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눈 가리고 아웅'식의 학교 행정을 비판했다.

익명이 보장되지 않은 무상배포가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콘돔은 익명이 보장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판기를 통한 배포가 가장 좋은 수단임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점에서 볼 때 보건복지부의 대대적인 콘돔자판기 설치 확대 계획은 크게 기대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해 올해 중 숙박업소 등에 1만8,000여개의 콘돔자동판매기가 설치할 계획이라 한다. 보건복지부는 콘돔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게이바, 찜질방, 일반 숙박업소, 유흥업소, 윤락업소, 역과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콘돔자판기 설치사업을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대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방역과 관계자는 "요즈음 동성연애자들 사이에 에이즈가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들이 자주 출입하는 업소에 집중적으로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주의 이러한 정책이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효성 높은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CJ그룹 '금연운동' 자판기가 당근

CJ그룹이 사내 완전금연에 도전을 하면서 자판기를 당근으로 활용한다.

CJ그룹은 지난 3월부터 서울 남산 그룹본사 빌딩 16층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퍼펙트 금연(직원전원 금연)"운동에 돌입했다. 창립50주년인 올해 그룹 분위기를 더욱 새롭게 해보자는데서 착안된 것.

CJ는 절대금연 운동의 성공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총동원됐다.

우선 전직원들로부터 협조서약서를 받아내기 위해 반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사원들이 평소 사내 인트라넷을 쓴다는 점에 착안,컴퓨터 화면에 서약서 "팝업창"을 띄웠다.이 팝업창은 협조서약서를 제출할 때까지 계속 뜨게 돼 있다. 이 덕분에 7백여명 전원의 협조서약서를 받아냈다.

당근요법도 이색적이다. 재떨이를 모두 치우는 대신 건물 12개층에 무료자판기를 설치했다. 오렌지와 포도주스, 커피는 물론 다이어트 디저트인 쁘띠첼 등을 무제한 공급해 심심한 입을 달래도록 배려했다.

한 여직원은 "살찌는 부작용이 없는 군것질거리만 모아 놓은 회사측의 배려가 느껴져 좋았다"고 말했다.

### 화폐단위변경 검토, 자판기가 걸림돌

최근 경제 여건에 맞게 화폐를 액면 절하하는 방안(디노미네이션)이 검토된다. 또 화폐 도안인물에 김구, 유관순 등 다양한 인물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월 경제규모의 확대와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화폐단위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국민제안을 적극 검토사례로 분류해 소관기관인 한국은행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 62년 화폐단위 변경 이후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1천600배 정도 커지고 소비자물가도 45배 상승해 향후 10년안에 경(京) 단위 사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폐단위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인수위에 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 졌다.

또 지난 73년 1만원권이 도입된 이후 경제규모가 100배 이상 커져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고액권 대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폐사용의 편의 제고를 위해 새 고액권의 발행도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한은의 업무보고 자료에도 화폐단위 변경이 장기과제로 포함돼 있었다"며 "화폐단위 변경은 거리의 자동판매기 시스템까지도 바꿔야 하는 민감한 문제로, 검토여부는 한은의 고유업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말 대로라면 화폐단위 변경에 있어 자판기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따라서 화폐단위변경을 위해서는 자판기 분야에 비치는 효과, 대책 등에 있어 자판기 업계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함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다.

한편 화폐의 도안인물이 조선시대 이씨 성을 가진 남성들로만 구성되는 등 편향적이란 지적을 감안해 여성도 포함시키는 등 도안인물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일본 치요다구에 등장한 흡연용 트레일러 '스모카'에서 여성 애연가들이 담배를 즐기고 있다.

### 日 금연운동 확산의 단면을 보는 두가지 세태

금연운동 확산은 비단 우리나라의 경우만은 아니다. WTO규제 영향 등으로 인해 범세계적으로 금연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를 보여주는 두가지 세태가 화제가 되었다.

그 첫 번째 화제는 도쿄금연거리에 등장한 흡연차 등장 소식이다.

일본 도쿄의 중심지역인 치요다구가 지난해 10월부터 길거리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담배회사 JT(Japan Tobacco)가 흡연용 트레일러를 제공하고 나섰다.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스모카(SmoCar)'라고 이름 붙여진 이 트레일러는 지난 20일 치요다구 중심가 황궁 근처 산케이 빌딩 앞에 처음 등장했다. 8.3m에 이르는 이 거대한 은색 트레일러는 의자를 없애고 재떨이가 딸린 공조장치를 설치해 약 20명의 흡연가들이 여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내부에는 커피, 청량음료 자판기는 물론 휴대용 재떨이,라이터 판매부스도 갖춰져 있다.

스모카 이용객 사토 히로다카(34)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돼 불편 했었다"며 "금연구역이 늘어나 만큼 이런 흡연공간도 더 생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JT관계자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스모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요다구의 '길거리 흡연 금지 법안'은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담뱃불에 옷을 태우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만엔(약 2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일본에서는 성인인구의 3분의 1,성인 남성의 절반 이상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알려 졌다.

또 다른 금연운동확산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뉴스는 일후생성 청사내 담배자판기 철거 논란이다.

금연운동의 기수 역할을 해온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청사내 담배 자동판매기의 철거를 놓고 조용한 논쟁이 일고 있다.

논쟁은 후생노동성의 후생과학심의회 한 위원이 흡연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교육하는 정부 부처내에 담배 자판기가 설치됐다니 이상하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금연 지지론자들은 담배 자판기 철거를 적극 옹호하는 반면 이른바 골초'들은 이같은 논쟁 자체를 원치 않고 있다.

후생노동성과 환경성이 입주해 있는 도쿄 제5 정부종합청사 건물에는 현재 8대의 담배 자판기가 설치돼 있다. 후생노동성은 과거 7~8년 전에는 현재보다 많은 10~20대의 담배자판기를 두고있었으며, 최근 몇 년째 세계 금연의 날인 5월31일이 든 주간에 일주일 동안 담배자판기의 전원을 끄고 있다.

오에 마사히로(大江 雅弘) 생활습관병대책실장은 "후생노동성이 총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자판기를 책임지고 있는 직원후생과에 심의회 담배분과의 불만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직원후생과는 담배자판기를 애용하는 상당수 흡연파 공무원들의 반대와 보건정책을 추진하는 부처로서의 원칙론 사이에서 갈등하며 아직 자판기 철거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오에 실장은 정부의 새 금연정책을 담은 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올해 5월까지는 확실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 日 위조지폐 급증에 따른 자판기 피해 속출

일본의 위조지폐 적발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자판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위조지폐는 전년대비 2.7배나 증가한 2만 210장에 달했다. 26일 일본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특히 1000엔권의 경우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특수 자기잉크로 만든 위폐가 급증, 처음으로 1만장을 넘어섰다.

사람 눈을 속이는 것 보다는 자동판매기, 발권기, 외화 환전기 등 기계의 식별장치를 속이는 위폐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압수된 1000엔권 위폐는 약 90%가 자동판매기 등에서 발견된 것.

이와 함께 1만엔권 위폐의 경우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 보급으로 정교한 위폐를 만들 수 있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범죄 조직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우리나라도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의 화제거리로만은 볼 수 없는 소식인 듯이다.

### 세계 커피 값 폭락…재배농장 위기

이번 호 글로벌 자판기 화제의 마지막 화제는 세계 커피 값 폭락 소식으로 대신한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노무현 대통령은 '자판기 커피'가 가장 맛있다고 밝혀 화제가 된적이 있

다. 커피가 전 유럽에 보편화된 계기도 16세기 초 교황 클레멘트 8세가 커피 맛에 매료됐기 때문이었다.

최근 커피 거래가격이 폭락해 전세계 2500만 커피 재배농가들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2002년 12월 기준) 뉴욕상품거래소에서 97년까지 파운드당 3달러에 거래 되던 커피가격은 99년 12월 42센트로 떨어졌다. 최근에는 12센트까지 낮아지기도 했다. 이 같은 가격은 최근 1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계은행은 중남미에서만 커피값 폭락으로 실직한 노동자들이 6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절망한 일부 농민들은 커피 대신 대마초나 양귀비 재배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 수출의 대부분을 커피에 의존하는 우간다, 부룬디, 에티오피아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상황은 더 비참하다.

미국의 격주간 경제지 포춘은 최근호(12월 9일자)에서 커피값 폭락의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했다. 첫 번째 원인은 공급 과잉. 베트남은 90년대 이후 브라질에 이어 세계 제2의 커피생산국으로 부상했다.

베트남은 농민들은 90년 이후 100만 에이커의 북부 산간지대를 커피 경작지로 변화시켰다. 생산량은 90년 8만4000t에서 2000년 95만t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베트남 커피 생산량 증가로 공급량은 8% 초과했고 가격 균형도 붕괴됐다.

그렇다면 90년대 이후 베트남 농민들이 커피 생산량을 늘린 이유는 뭘까. 커피업계 빅4인 네슬레(Nestle), 크래프트(Kraft), 프록터 앤 갬블(Procter & Gamble), 사라 리(Sara Lee) 등은 90년대 이후 커피 정제 기술을 크게 발달시켰다.

과거 커피생산업체들은 정제과정에서 아라비카(Arabica)를 주원료로 하고 소량의 로부스타(Robusta)만을 배합했다. 브라질과 콜롬비아에 서 주로 생산되는 아라비카는 고급 커피로 값이 비싸며 로부스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생산되며 맛이 거칠고 향이 나쁘다. 그러나 정제기술의 발달은 로부스타의 거칠고 불쾌한 맛을 개선시켰다.

베트남 농민들은 이때부터 경쟁적으로 로부스타 커피 재배에 뛰어 들었다. 베트남 북부의 한 농민은 한때 커피 재배로 연간 4000달러의 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베트남 국민 1인당 GDP는 370달러였다.

99년부터 상황은 역전됐다. 베트남 최대 국영커피회사 비나카페는 99년부터 3년 동안 모두 315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부채는 1억8400만 달러에 달한다.

커피카르텔 붕괴도 커피값 폭락에 일조했다. 국제커피기구(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는 62년 체결된 국제커피협정(International Coffee Agreement)에 따라 국가별 할당제를 채택해왔다.

국제커피협정은 석유카르텔과 달리 소비자도 참여한다. 전체 63개 협정 서명국가운데 18개국이 수입국이다. 이 때문에 수입국의 영향력이 크다. 특히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25%를 소비하는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미국은 냉전기간 동안 남미의 커피재배 농민들이 가난을 이유로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커피협정을 적극 지원했다. 그러나 미국은 구소련 붕괴 후 커피카르텔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이때부터 커피값은 균형을 상실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커피시장은 30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커졌다. 이 같은 성장은 빅4가 생산하는 인스턴트커피가 아닌 스타벅스와 같은 고급 커피 시장 확대에 따른 것이다. 포춘은 "커피산업은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위한 공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